잘되고 못되는 건 걱정 말고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

☞ 27면에서 계속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겁니까?

그리고 모든 착을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착을 떼시라 그러는 건 말입니다, 여기 제주의 여러분은 부적도 써다 붙이고 누구를 찾아가서 잘된다 못된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겠고 그렇게 기복으로 많이 다니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찔러 녹여 버려라 하는 것은, 찰나의 생활이니까 잘못된다 잘된다 이것을 떠나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가정도 있고 우주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아요? 나부터 알아야죠! 각자 여러분이 모두 나부터 알아야 남에게 주기도 하고 참, 보살행으로써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원심력이 생겨요. 이게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두루 모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나의 물질적으로 살던 습을, 수억겁 광년을 거쳐 나오면서 인간이 되기까지 진화되면서 살아온 그 습을 녹여야 합니다. 인간이 됐으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을 떼려면 '아! 내 주인공은 용광로와 같다. 일체 우주와 천지가, 태양이, 월세계가, 혹성들, 별성들 일체 모두가 다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으니 직결이 돼 있는 내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직결돼 있으니까 내가 마음먹는 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부터 알게 되면 차차 차차 실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나를 진심으로 믿게 되고 '아하, 나뿐이 아니로구나. 역대 조사들도 일체제불도 다 나한테 직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색경을 보시죠. 그 그림자가 나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는데 묻어 줄 사람도 없어서 갖다가 놓고선 엉엉 울었습니다. 묻으려고 해도 땅이 얼어서 손으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포대기로다 둘둘 말아 놓은 위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걸쳐 놓고, 솔가지로 덮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죽은 아이가 춥다고 자기 두루마기까지 벗어서 더 덮어 주면서 어머니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가시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이든 육신의 행이든 똑같단 얘기죠. 행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죽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왜 부인께서는 이렇게 우십니까?" 하니까 "9대 독자인데 이 어린애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먹을 게 없어서 일하러 나가고요." 하고 울거든요.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살님!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계십시오. 이 촛불이 꺼지면 나는 오지 못합니다." 하고서는 턱 거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냥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어딜 갔느냐 하면, 환상천을 들러서 무명천을 들러서 불사천을 갔는데 거기에 그 애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불사천을 거쳐서 생사천을 가야 천도가 돼서 다시 이리로 오든지 어떻게 뭘로 되든지 하는데 그 불사천에 이름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 스님이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사천왕을 찾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 다시 무명천에 가 보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무명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곳 관리인한테 그 어린애 영혼을 받아 가지곤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초가 거의 다 타 버리고 달랑달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혼백을 넣으니까 그 어린애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참, 공부가 그만큼 되어 있어서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 하죠.

그래서 아이를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 준 그 스님이 "허허" 하고 웃으며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환상천으로 불사천으로 무명천으로 돌아다녀 보니 모든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구나. 살아생전에 불이 뜨겁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사천에 가서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 뜨거워서 거길 지나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물을 못 건너가는구나. 많은 마구니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환상인 줄 알지 못해서 의식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 환상천을 떠나지 못하고 거길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물질화돼서 물질, 환상으로만 살다 보면 넘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벽도 없고 지붕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 여기에서 다른 혹성에도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불이 뜨겁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남아 있어서 불사천을, 즉 말하자면 화탕지옥이라는 데를 건너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잘못되면 그 펄펄 끓는 물에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그 펄펄 끓는 물이 있는 데에 빠져 죽을까 봐, 타 죽을까 봐, 데어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거죠.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차에 말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존하지 않는 그 그림자에 놀라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우리 두뇌의 구조를 보면 잠재의식으로서의 판단 기능은 바른쪽에 있고, 현재 현상세계로서의 판단 기능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둘이 아니게,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까지는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만 됩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죠. "대승 소승이 따로 없다. 대승도 놓고 소승도 놓아라. 악도 놓고 선도 놔라. 동서가 둘이 아니요, 남북이 둘이 아니다.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어른과 애가 둘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고 스승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저렇게 어린 애를 어떻게 스승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먼저 늙었기 때문에 그러느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 시공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스님네들은 애쓰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먼저 늙었겠습니까? 애는 먼저 늙어서 벌써 다시 애가 돼 왔으니까요. 어른은 지금 애가 되려고 가는 길이구요. 하하하. 어떻습니까? 이것이 두루 둘이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영령들은 수만 개가 있어도 영령일 뿐이지 그렇게 너 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무역무(無無亦無)" 이렇게도 말을 했죠. 또 마음의 자가발전소라고도 했습니다. 이 자가발전소에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법이 없죠. 자가발전소에는 꺼진다 켜진다가 없기 때문에 대승, 소승이 없다 이겁니다.

또 이걸 용광로로 표현을 했는데, 용광로에다 작든지 크든지 다 놓는 작업만 한다면 나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재생돼서 나간다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돼 나가는 거니까 잘되고 못되는 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놓는 작업만 애를 써서 해라 이겁니다. 내 주인공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고 다닐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이 세상의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다. 들여도 두드러지지도 않고 내도 줄지도 않는다.

모습도 각각 용도에 따라서 내놓으면서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는데, 마음으로 나투니까 천백억화신으로서 어디 손 안 닿는 데가 없고 어디 안 보는 데가 없고 어디 안 듣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삼십이응신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어서 여러분한테 응해 주시되 아프다면 약사로 나투어 주시고 가난하다면 관세음보살로 나투어 주시고 산신으로 나투어 주시고 지장으로 나투시고, 수없이 나투시는 그 마음이 한군데서 나가는 거라 이겁니다.

이 모두가 우리 지금 현실에서 부닥치는 얘깁니다. 세균이 바깥에서 들어오고 영계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이 이 공부를 못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속에서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명들의 마음들은, 보이지 않는 데 마음들은 나의 마음과 같이 한마음이요, 몸뚱이는 내 몸뚱이와 속에 든 몸뚱이들이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죽거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원통력이 있는 한마음 속에다가, 주인공 속에다가 일체를 놓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몸뚱이로만, 이론적으로만, 망상적으로만 돌아가서 반쪽 50%인 현상세계의 판단만 하고 사는 겁니다. 대뇌의 반쪽으로만 말입니다. 항상 들락거리고 통신은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걸 막아 놓고, 의식적으로 막아 놓고 쓰는 거죠.

그러니 악업 선업이 나오는데, 때로 화가 지독하게 나게 하면 그거는 화탕지옥이죠. 선하게 나왔다 악하게 나왔다 하면서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게 하는 수십억 생명들의 마음이 악업 선업으로 인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을 하느냐.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면 내 지배인의 마음이 그 모든 마음들을 같이 한마음으로 굴리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안에 있으면서 들락거리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도 두서없이 나오는 병, 두서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 이 모두를 해결하는 것은 내 주인공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봐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주인공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안 되는 것도 한 찰나요,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9월 2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